

# 무위자연 노래한 '진묵대사' 무대서 만난다

극단 삼육오 '천년을 뜨고 지면 : 진묵대사, 노닐다 간 자리' 창작 초연

"한바탕 신바람 춤을 추니, 긴소매 옷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그것이 걱정이노라"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된 극단 삼육오가 창작 초연작품 '천년을 뜨고 지면'(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자리)을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신중한 능력으로 생사를 임의로 여탈했다는 진묵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웅진 봉서사를 비롯하여 완주 곳곳에 깃든 진묵대사의 행적과 설화를 바탕으로 고승의 신이한 행적을 그려낸 국내 최초의 무대화 공연이다. 조선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과 당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여 유불선 삼교회통의 경지를 펼친 대사의 삶을 최초로 무대화한 의미가 매우 크다. 고려말 나옹선사와 더불어 석가의 현신이라는 지칭을 받은 두 인물을 대비하며, 천년의 여정 속에 삶과 죽음의 운명과 운명적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극중 진묵과 회춘의 생을 넘나드는 사랑은 애달픈 해원과 상생을 희구하는 진묵대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층 부각시키며 수도의 삶의 경계에 선 인간적 고뇌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극단 삼육오는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적 구현의 목표뿐만 아니라, 완주지역 곳곳에 남겨 놓은 진묵대사의 족적과 그 가치를 직조해내는 '항토브랜드작품' 무대를 창출하여 지역 대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이번 작품은 황토페퍼토리컴퍼니 대표 및 전북도립극단예술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2회 수상하는 등 46년간 무대연출가로서 명성을 쌓은 박병도 교수(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가 극작, 연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된 극단 삼육오가 창작 초연작품 '천년을 뜨고 지면'(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자리)을 무대에 올린다.

출을 맡아 걸출한 작품세계를 펼쳐낸다.

진묵대사 역에는 장재혁(극단 해음 대표), 상대역 회춘역에는 이미리(극단 삼육오 대표), 그리고 강택수(전 전북연극협회장), 권오훈(전 극단 황토 대표), 류환희, 지현미, 윤종근, 이정민, 주창환, 박지수, 이도훈, 손현일, 김지혜, 박보민 등 화려한 출연진이 호흡을 맞추어 새로운 관점의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대를 펼친다.

국내 최초로 진묵대사를 소재로 무대화되는 '천년을 뜨고 지면'은 현실과 비현실을 교차하여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관객의 다채로운 감성적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익숙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관점의 무대 표현언어 소통 경험을, 낯선 사람에게는 입체적 관객 체험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출적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19일 오후 3시 총 2회 공연된다. 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공연과 관련된 문외는 '극단 삼육오' 기획(010-6693-3086)으로 하면 된다. 더 다양한 공연 정보는 인스타그램(samyuko36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은경 기자

# 전주문화재단, '탄소예술기획전' 개최

12월 7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전시실서 13명 작가 50여점 전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전주팔복예술공장 전시실에서 '2022 탄소예술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부터 3명이 증원된 13명의 작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탄소 가전, 탄성, 강도, 경량 등을 사전에 습득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사전 워크숍과 기술지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후,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선발해 5개월간의 작품 제작과정을 거친 50여 점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엔 참여한 예술가는 회화, 조형, 도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로 박정우, 문민, 서완호, 소찬삼, 이강원, 이상훈, 이호철, 이희춘, 장영애, 장우석, 최무용, 나잇노이즈, 레데츠키 아드리안 등이다.

2022년 탄소예술기획전의 주제는 '탄소와 예술: 유기적 집합'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탄소섬유를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창작한 새로운 매체에 관한 연구의 결과이며, 예술가가 탄소예술

작품을 창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에 절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근본적인 결합은 탄소라는 매체의 본질적 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집합시켜갈지를 되돌아보길 바라는 시도를 담고 있다.

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참여작가와 전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후원기업 (유)유니온시티가 함께 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탄소예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매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탄소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김강현 캐릭터디자이너 재능나눔 특강 군산대서 열린다

시각디자인 동아리 주최 19일 진행

군산대학교 시각디자인 동아리인 랑광캐릭터커뮤니케이션(공동지도 이지현 교수, 이원범 교수)이 오는 19일 저녁 7시 캐릭터디자이너 재능나눔 웹엑스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 주제는 '캐릭터브랜딩과 포트폴리오 만들기'이다. 강사인 김강현 디자이너는 2008년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금융카드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현재는 '꿀킴'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이모티콘 디자이너와 소셜미디어 인기 웹툰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강현 디자이너는 15여년 간 기업 캐릭터 중심의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웹툰 중 일부를 그려 그립에세이 '너의 모든 순간이 빛나고 있어'(출판사: 스퀘어미디어)를 출판하였다. 또한, 카카오톡이모티콘 '턱이 큰 강아지 빅조', '행모의 겨울엔딩', 라인 이모티콘 '참쌀떡꼬끼리 요한'도 출시했다.

김강현 작가의 웹툰은 인스타그램(@ggul\_gin)에서 볼 수 있다.

특강은 군산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외는 산업디자인학과 과사무실(063-469-4421)로 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라청년미술상 제12호 수상자 강유진 서양화가 선정

기린미술관에서 19일 시상식 · 17~30일 수상작가전 진행

전라청년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헌)는 전라청년미술상 제12호 수상자로 서양화가 강유진(30)씨를 선정·발표했다.

전라청년미술상은 2011년부터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만40세 이하의 유망한 청년작가를 발굴 선정하여 미술상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창작 의욕을 북돋우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의 심사는 작가의 활동력, 작품의 실험성, 지역미술계와의 건전한 교류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과 초대개

인전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서양화가 강유진 작가를 선정했다. 강 작가는 무심한 듯 펼쳐진 넓은 들과 그 주위의 건물 잔해들이 만드는 이질적인 감정에 주목한다. 그것들은 어느 날은 평범해 보이기도 어느 날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제는 풀들의 높이터졌던 곳이 오늘은 반듯한 건물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은 화려하지만 쓸쓸하다. 인간과 자연이 충돌하는 듯, 공생하는 듯, 부대끼며 살아가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일련 평범한 풍경

화인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변화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하다.

수상자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했고, 4회의 개인전과 50여회 단체전에 출품하였으며,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21 선정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상식은 19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열린다. 그리고 강유진 수상작가전은 17일부터 30일까지 기린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역대 수상작가들과 운영위원이 함께 하는 봉정만리전(鵬程萬里展)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린미술관에서 열린다. 참여작가는 김동헌, 이명복, 문리 운영위원과 김용수, 이광철, 이홍규, 이호철, 서완호, 탁소연, 장영애, 정소라, 김성수, 이보영, 황유진 등 역대수상작가들이 참여한다. /김재훈 기자

# 원광대 문개성 교수 저서,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원광대학교 문개성(스포츠과학부) 교수의 저서 '스포츠마니타스: 스포츠가 걸어온 몸의 길(하빌리스에서 검투사까지)'이 최근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예술)에 선정됐다.

학술도서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이뤄졌다. 스포츠마니타스(SPOMANITAS=sports+humanitas)는 문개성 교수가 만든 단어다.

문 교수는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고매한 이상을 갖추기 이전에 근원적 본성을 발산했던 인간성을 오늘날 폭발적인 소비문화로 발전한 스포츠를 통해

살펴봤다.

문 교수는 "선사·고대, 중세·근대, 현대·미래 등 총 3부작으로 구성했는데 첫 번째 저서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빈약한 몸으로 지구 전체를 감싸는 종이 되면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우리, 스스로 공격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세종학술도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된다. /뉴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